



# 꿈을 파는 마술가계

네 오 위 즈 박 진 환 대 표

젊다는 건 자산이다. 벤처는 다들 젊음이라는 자산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네오위즈의 박진환 대표는 유독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다. 서른 셋이라는 신체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그의 주위에서 젊음을 같이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파릇하지만 설익지 않은 젊음으로 업계의 '최초'들을 다시 쓰고 있는 박진환 대표. 그가 그리고 있는 희망과 꿈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세** 이클럽’과 ‘피망’으로 더 잘 알려진 네오위즈의 박진환 대표. 스물 아홉에 대표자리에 오른만큼 그의 행보는 항상 예사롭지 않다. 하여 그의 행보 앞에는 항상 Fun경영의 전도사, ‘닷컴의 최초들을 다시 쓰는 사람’ 등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런 그이기에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오히려 희망을 노래한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네오위즈의 성장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는 배짱의 소유자이기에 오늘날 네오위즈의 성공을 만들 수 있었다.

### 신뢰와 상상력으로 일궈낸 성공

네오위즈는 1998년 인터넷접속프로그램 ‘원클럽’으로 세상에 첫 신고식을 한다. 전화를 통한 기존의 복잡한 인터넷 연결방법을 한번의 클릭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한 이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라는 찬사와 함께 네오위즈를 일약 스타기업으로 올려놓는다.

인터넷의 세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였으니 그들이 머물 공간이 필요할 터. 네오위즈는 커뮤니티사이트 ‘세이클럽’으로 그들이 머물 디지털 꿈틀을 마련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여 지금은 닷컴의 보편화된 수익모델이 된 아바타 유료화를 2000년 말 세계 최초로 개발한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업계에서 항상 한발 앞설 수 있게한 네오위즈의 비결은 무엇일까. 박대표는 이른바 ‘블랙홀론’으로 이를 설명한다.

“네오위즈의 내부에는 우수한 핵심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또다른 인재들이 이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 회사를 찾아옵니다. 우수 인력 확보의 도미노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같은 선순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박대표는 스스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단연 직원을 무한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직원이 맘껏 자기 능력을 펼치도록 하고 사장과 직원의 교감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뢰는 상상력처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간이죠.”

세계 최초로 아바타 아이템을 판매하는 수익모델을 창조한 감각과 직원들과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해 남다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이것이 박대표를 중심으로 뭉친 네오위즈의 성공비결이다.

###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진출을 꿈꾸다

신뢰와 상상력으로 뭉친 네오위즈 직원들의 역량을 모아 박대표는 이제 온라인게임에 전념할 계획이다. ‘재미가 터진다’는 카피처럼 말그대로 대박을 터트린 온라인게임사이트 피망을 시작으로 그간 줄기차게 개발해온 온라인게임들. 그 중에서도 국내 게이머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테스트 중인 ‘요구르팅’은 이미 340만달러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일본시장에 진출하였다. 이 진출에는 박대표의 신중함이 묻어 있다.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3년간 공을 들였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이 말처럼 쉬운게 아니더군요. 이제 일본을 필두로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온라인게임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업체로 거듭나야죠.”

경쟁사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한 ‘Time-Saving 사업’을 추진한다면 네오위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Time-Spending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Fun경영을 추구하고 조직의 결속을 누구보다 중요시하는 박대표의 경쟁마인드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금 우리는 메가트렌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생활방식의 등장과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속에서 아직은 찾아야 할 것이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을 형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성공이란 지점에 연착륙하는 것을 즐기는 기업 네오위즈. 직원과 더불어 아이디어를 알토란처럼 키워 무형의 상상력을 가치있게 만드는 박진환 대표는 이제 다시 푸른 꿈을 꾸다.

“다큐멘터리 ‘실크로드’의 배경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을 정벌할 꿈을 꾸니다. 이제 해외로 나가야죠. 유럽 정벌! 어때요, 가슴 뛰지 않습니까?”

### 네티즌과 함께하는 네오위즈의 아름다운 나눔

네오위즈는 세이클럽(www.sayclub.com)을 통해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 ‘아바타 헌옷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세이클럽내 아름다운 가게에 아바타 아이템을 기부하면 네오위즈가 수익금을 아름다운 가게 측에 전달하는 이 캠페인은 네티즌의 뜨거운 호응속에 진행되고 있다.

### 벤처 창업을 꿈꾸는 자들에게 송함

“꿈을 좇되 현실을 직시하는 선구안과 꿈을 잃지 않는 인내심을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분야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한 애정이 그 일의 가치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최고로 가치있는 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벤처정신입니다.”